

주 제 : **King's Way**, 예수님을 만나는 길

주제본문 :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128:1)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나요?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기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한다. 삶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그중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시와 만나는 경험에 있는 공간이다.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인간과 만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만나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계시와 만나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성서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것이다. 성서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와 만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만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것이다.

성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더 좋은 삶을 발견하였고, 더 좋은 세계를 발견하였다. 즉, 그들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시간인 것이다. 이번 여름 성서 인물들의 만남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올해의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 한 가지 도구를 사용했다. 그것은 성서지도이다. 마침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4가지 이야기들은 모두가 만남이 일어났던 지역명칭이 분명하게 언급되었다. 성서지도를 활용하면 성서의 이야기가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성서에 나타나는 지역의 명칭만으로도 예수님 사역의 성격을 알려줄 때도 있다. 또 지역의 명칭이 예수님의 공생애 어느 시기에 일어났던 일인지 알려주기도 한다. 이렇게 성서의 지역명은 성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성서지명을 아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다. 교사 자신들이 성서의 지도를 보지 않고 성서의 이야기를 배웠다. 많은 사람이 그러했다. 한 예로 나는 오랫동안 출애굽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말로만 들었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혼동되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도를 펴고 지명을 따라가 보니 그 이야기가 너무도 간단하게 정리되었다. 지명, 경제, 기후 등 당시의 상황을 알고 성경의 사건을 보니 성서의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쉽게 이해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들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로 나와 만나진다는 것이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서의 지명과 그 지역이 위치한 지도를 보며 살펴볼 것이다. 예수님이 다니신 길을 우리는 King's Way라 명명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Lord) 이심을 암시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King's Way를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예수님과 만난 그들은 그 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번 여름엔 어린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 길을 갈 것이다. King's Way를 따라가는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가나에서 만난 예수님 (요1:43-51)

첫째 날 우리가 만날 사람은 나다나엘이다. 나다나엘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메시아 도래를 열망하고 있었던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의 인간적인 지식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지식을 가진 분 앞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고백한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후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다.

가버나움에서 만난 예수님 (마 9:1-8)

둘째 날 우리가 만날 사람은 가버나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중풍병자이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한 첫 번째 사건이다. 자기 자신이 걷지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채 주님 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두려움의 이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제 그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죄 사함을 받은 뒤 그는 신체적인 문제도 해결된다. 이 본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죄 사함의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여리고에서 만난 예수님 (막 10: 32-52)

셋째 날 우리가 만날 사람은 눈이 떠진 맹인 바디매오이다. 바디매오는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보기를 원하다”고 말한다. 3년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구하는 것과 달랐다. 이러한 그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기를 원한 맹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은 그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 그가 믿음으로 구한 것을 얻는 축복을 받는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행 9:1-9)

넷째 날 우리가 만날 사람은 사울이다. 그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충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그런 그가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작스런 일이 일어났다. 하늘로부터 비치는 강한 빛에 압도되었고 보지 못한다. 성령이 3일 동안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 후 그의 눈이 떠진다. 그날은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진 날이었다. 영적인 눈이 뜨인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진다.

성서에 나오는 4명의 인물들이 King's Way에서 예수님과 만남 후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보았다. 이런 만남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2016년 여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 King's Way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어린이들도 King's Way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길 바란다.

각 과 해설

1과, 첫째 날 - 가나에서 만난 예수님과 (요1:43-51)

가나는 나사렛 북동쪽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다.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으로 엘 바트흐라는 비옥한 평야의 북쪽 구릉지에 위치한 부자 동네였다. 이에 비해 가나 남쪽 13km 떨어진 나사렛은 해발 400m의 산 위에 위치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 동네였다. 나사렛은 갈릴리 남서쪽 19 km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북쪽의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흔히 이용하는 공격 루트였다. 자연적으로 유대 여인들과 이방 군인들 사이에 혼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을 천시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인격적 만남이 없이는 수백 번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여도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다나엘, 그는 어떤 만남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또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까?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가나 마을 출신으로 빌립과 절친한 사람이었다. 빌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메시아 도래를 열망하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은 가나에 살고 있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한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빌립의 소개에 나다나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으로 알고 있었다(미 5:2). 그 당시 갈릴리의 나사렛은 선지자가 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요 7:52). 구약에 능통한 나다나엘이었기에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 났다. 나다나엘의 인식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 났다. 어떤 사건인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신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셨는데 그것도 그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질문이 있다. 왜 “이스라엘”이란 표현을 썼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야곱을 생각해야 한다. 1:51의 말씀도 야곱과 연관이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구약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던 밤에 자신의 패배를 통해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스라엘이란 의미는 자신의 피로 살던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지식이 모든 인간적 이해를 초월하는 자임을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에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와 상태와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알고 계신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알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던 방법이 달랐고 제시하신 해결책 또한 달랐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다.

2과, 둘째 날 -가버나움에서 만난 예수님 (마 9:1-8)

가버나움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갈릴리 지방 선교본부라고 할 만큼 예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교훈을 행한 곳이다. '나훔의 마을'이란 뜻.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의 성읍. 신약에만 언급되는 성읍인데, 이곳은 신약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세관이 있는 큰 성읍이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세리 마태는 이곳 가버나움 세관에서 제자로 부름받았다(마 9:9-13).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교훈도 주셨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마 11:21-24; 눅 10:15).

둘째 날 우리가 만날 사람은 가버나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중풍병자이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한 첫 번째 사건이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거기에는 일반 군중 외에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도 있었다.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붕을 뜯어지고 있었고, 중풍병자를 누인 침상이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다.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채 주님 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그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다. 아마 죄의 문제 때문은 아닐까? 이것은 이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서 알아갈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마9:2)라는 말씀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다. 첫 번째 말씀 '안심하라'는 중풍병자가 가진 두려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그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은 지금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것이다. 어떤 마음이 그를 두렵게 하였을까? 당시 사람들은 그의 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풍병자 자신도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안심하라'라는 단어는 '두려워 할 것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수님은 그가 버림받고 망가지고 죄로 범벅이 된 자신에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두려움의 이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제 그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용서 받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체적 장애보다도 자기의 죄를 더욱 날카롭게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그에게 죄 때문에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죄 사함의 사건은 즉시 도전을 받는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마9:3)라고 생각하였고, 이런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다. 사실 당시 서기관들의 입장은 이해할 만하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마9:5). 물론 둘 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죄를 사하는 것도, 중풍병자를 걷게 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았다.

이제 예수님의 권능을 눈으로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죄의 용서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신체를 고치는 것은 눈으로 보면 확인되는 일이다.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마9:6)고 말하며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다.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간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눈으로 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사하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는 장면이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죄 사함의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고후 5:19). 그렇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3과, 셋째 날 - 여리고에서 만난 예수님 (막 10: 32-52)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 36km, 요르단 강과 사해(死海)가 합류하는 북서쪽 15km 지점에 있다. 지중해 해면보다 250m나 낮다. 각종 과실수(특히 종려나무)가 우거진 오아시스로, 예로부터 종려나무 성이라 불려왔다. 구약성경의 여리고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한 성읍이기도 하다. 당시에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육 일 동안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칠 일째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자 말씀대로 성이 무너져(수 6:1-21) 함락시켰다. 엘리사가 여리고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던(왕하 2:19-22)고이기도 한데, 오늘날에도 엘리사의 샘이 솟아나고 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 번 이곳을 지나셨는데, 예로부터 이 도시는 순례자들의 통로로서 물과 음식을 얻기에 적절한 곳으로 주님이 소경 바디매오를 고치기도 하셨고(막10:46:52) 삭개오를 만난 곳(눅19:1)이기도 하다. 이 길 사이에는 유다 광야가 있어서 위험한 길이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눅10:30)도 등장한다. 현재 예루살렘에서 암만 이르는 도로변에 있는 여리고는 비잔틴 시대의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인생을 마치는 길이었다.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여기고 예의 주시하며 그를 잡고자 하였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자굴과도 같은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가신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 상황에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수도 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들도 거침없이 말씀하시며 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포함된 필연적인 일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예수님은 8:31-38, 9:30-32에서 자신의 수난을 예고했었다. 10장의 수난 예고는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당할 일들, 즉 치욕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다.

세 번째의 수난 예고를 들은 상황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청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는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이 질문은 나중에 바디매오가 받았던 질문과 같았다. 이런 질문에 그들은 세상의 권세를 구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 본인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은 여리고에 이르렀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이 가까워진 것이다. 여리고는 베뢰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관문이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리고에서 맹인을 만난다. 이 맹인은 길에서 나사렛 예수가 이 길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는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맹인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를 부르며 자신은 불쌍하니 돌아봐달라고 소리친다. 많은 사람이 꾸짖는다. 그러나 이런 꾸짖음을 그는 상관하지 않는다. 더 큰 소리로 도움을 외친다. 이 맹인은 자신에게 온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러자 맹인은 자신의 재산과도 같은 겹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 나아간다.

이런 맹인에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신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세상 권력을 구했던 그들과는 다르게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 이러한 맹인의 대답에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신다. 보기를 원한 맹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하신다.

왜 보기를 원하는 맹인의 이야기를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 바로 뒤에 기록하였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세 번의 수난 예고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바르게 보지 못한다. 육적인 눈은 떴으나 아직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한 제자들이다.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제자 됨의 가장 본질인 영적 눈이 떠지기를 간구해야 했었다. 바디매오가 구한 것처럼 말이다. 바디매오가 만일 제자의 수준이었다면 무엇을 구했을까? 아마도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을 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가장 본질의 문제를 해결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에게 유일한 재산이었던 겔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던 것이다. 보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함을 알 수 있다.

4과, 넷째 날 -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행 9:1-9)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40Km, 지중해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 현재 시리아 공화국의 수도로서 영어로 다마스쿠스(Damascus)이다. 구약성경에서 아람의 수도였지만 주전 732년 앗시리아(앗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다가, 주전 64년에 로마제국의 속국이 되었다. 성경에서 다메섹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갔던 곳이다(창14:15).

다메섹은 바울의 회심으로 유명해진 곳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온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바울이 회심할 당시에도 이미 여러 회당이 있었다(행9:1-2). 사울(바울)이 240Km나 떨어진 먼 도시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스테반의 순교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핍박 때문에 다메섹으로 피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사울은 그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결박해오기 위해 자진하여 당시의 유대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한 뒤, 일행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사울과 승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증거이다.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만남이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였다. 사울의 변화는 복음이 이방 세계를 넘어 땅 끝까지 전달될 것이라는 말씀(행1:8)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만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사도행전에만 3번 기록되어 있다(9장, 22장, 26장).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에서 다메섹으로 향했다.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진다. 다메섹도 그중 한 곳이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걸어서 4-6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이곳에는 4-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30여 개의 회당도 있었다고 한다. 이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것은 이 도시가 고대 세계의 곳곳에서 대상들이 모여들어 늘 많은 사람들이 활발한 교류를 나누었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에 불탔던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간다.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 위협하였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이단자로 생각했기에 하나님을 위한 충성으로 그들을 박해했던 것이다. 사울은 대박해의 선봉에 선 사람이었다. 9:1의 사울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한 단어 단어마다 사울의 살기등등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이런 열심으로 사울은 며칠의 여정도 힘들지 않게 걸어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작스런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비치는 강한 빛에 압도된 사울은 스스로 땅에 엎드린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목소리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계속 말한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 곧 그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도 직접 찾아와 만나주신다.

엎드려서 떨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울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자 했던 자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체포당한 것이다. 그는 사울 동안 보지 못했다. 육적인 눈이 감겨 보지 못한 채 지낸 그 삼일 간의 이후, 사울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이 떠지기 전까지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영적 무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삼일 동안 성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다. 사울의 눈이 떠진 그날은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진 날이었다. 성령으로 영의 눈이 떠진 사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사용되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될 것이다.